

도시공원 및 녹지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연구

-서울시 동작구를 대상으로-

박은진*·박전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들이 개발계획의 중심이 되면서 생활권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확충에 관한 계획' 등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 내에서 근린공원이나 녹지공간의 분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각 공원 및 녹지간의 연계성이 낮아 생태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공적인 바탕(matrix) 내에 존재하는 도시 내 녹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 서식처 파편화가 가속화되고 도시 내 서식처간 연결성이 감소하여 종의 공급원인 도시 주변의 대규모 서식처와 연결이 단절되어 생물 종 이입이 감소하고, 결국 도시 내 생물다양성도 감소할 것이다(김명수, 2001).

따라서 각 자치구 내에 섬처럼 산재되어 있는 공원 및 녹지 공간을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여 생활권 주변의 공원과 녹지를 상호 네트워크화 시키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녹지네트워크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그 개념을 생태공원이라는 공간에 도입함으로써 도시 내에서 녹지축의 핵(Cor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녹지네트워크와 생태공원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생태공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원의 내적인 요소, 즉 프로그램이라든가, 입지선정, 공원 내 들어가야 할 생태적 도입요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공원 내부의 생태적 요소의 나열이나 인간이용

중심의 공원 조성으로 인해 외부녹지와는 연계성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녹지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단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그 중 공원, 특히 생태공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언급한 연구 역시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녹지율은 낮지만 보라매공원과 현충묘지공원 등 다양한 녹지요소를 갖고 있는 동작구를 대상으로 기존 공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계 복원능력과 녹지연결성을 조사·분석하여 동작구 내 생태공원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녹지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핵(Core)의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 체계와 유형에 따른 조성방안을 제안하려는 연구로써, 연구의 범위는 크게 내용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살펴볼 수 있다.

내용적 범위로는 기존 공원·녹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생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기회요소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생태공원으로의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원·녹지에 대한 생태적 시설요소, 프로그램, 외부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녹지체계 및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이용자 인식조사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녹지 체계가 불균형하게 산재되어 생태적 연결성도 부족한 실정이나, 한강과 근접하고 근린공원과 함께 현충묘지공원, 서달산 등의 자연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현충묘지공원 주변을 두텁게 두르고 있는 26만여 평 규모의 녹지 띠를 근린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숙원사업도 진전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녹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녹지네트워크 조성계획에 동작

구 내에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녹지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좀 더 체계화된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동작구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중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내 생태공원과 녹지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성개념제안을 위한 도시생태공원 유형을 연구하고, 녹지네트워크 현황분석을 한다. 둘째, 동작구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중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을 중심으로 생태적 요소와 외부 녹지와 연결성 유무를 위한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제약요소)과 잠재력(기회요소)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앞의 조사·분석과 함께 생태공원 및 녹지네트워크 관련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를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통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녹지체계 및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III. 이론적 고찰

1. 도시생태공원 유형

도시생태공원은 조성분야에 따라 크게 공공녹지(공원, 광장, 운동장)와 그 외 기타 녹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원은 그 규모나 지형적인 위치, 기능적 성격에 따라 도시의 생태적 발전을 크게 좌우한다. 이와 같은 도시생태공원은 표 1과 같이 자연형 공원과 조성형 공원으로 구분되어진다(이승구와 유승각, 2005).

2. 녹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녹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는 면적인 요소로서의 핵과 거점, 점적인 요소로서의 점, 선적인 요소로서의 생태통로 등으로 이

표 1. 도시생태공원 유형

유형	위치	특성
자연형	기존 산림에 인접한 나지를 확보하여 시설지역 선정	- 순환체계를 가지는 산책로 설치를 해야 함 -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활용
조성형	지구 중앙에 배치하여 근린생활자의 공원이용도모	- 부지 조성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공적 방법으로라도 다양한 지형을 창출해야 함 - 식재의 다층구조화가 요구

표 2. 녹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특징
면 (Area)	핵 (Core)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그린벨트 내의 7등급 이상의 산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 녹지네트워크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유전자의 공급원이 되어야 할 대규모의 자연 공간 - 생태계 유전자의 공급원이 됨
	거점 (Spot)	규모가 큰 자연공원, 저수지, 호수, 생태공원, 도시림	- 핵과 점을 연결하는 중간의 전이공간이 되며 보통 생태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는 생물이 서식함
점 (Point)	점 (Point)	주택의 정원, 녹화된 옥상, 녹화된 벽면, 연못, 학교원, 오래된 노거수, 도시내 텃밭, 구석진 찌투리땅, 가로수, 화분	- 나비 및 작은 새 등이 사는 곳으로 식물의 종류를 다양화하면 다양한 생물이 날아오게 됨
선 (Line)	생태통로 (Eco-Corridor)	하천변 식생대, 철로변 식생대, 고속도로변 식생대, 선형의 방풍/방음림, 주택의 생울타리	- 핵과 핵, 핵과 거점 그리고 거점과 거점을 잇는 선형의 자연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비오톱"이 될 수 있음 - 비교적 작은 규모일지라도 두 개의 서식공간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므로 녹지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자료: 이동근 등, 2000, p. 5, 필자 재작성

루어진다(표 2 참조).

IV. 연구 결과

1. 공원녹지 조성여건분석(문제점 및 잠재력 진단)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공원의 세부적 현황조사는 동작구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총 62개소 공원 중 도시공원으로 분류된 근린공원 7개소와 주제공원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공원의 생태공원 체계화에 대한 기회요소와 제약요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와 함께 동작구 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생태공원조성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작구의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은 총 6개소로, 보라매공원, 노량진공원, 상도공원, 용봉정공원, 까치산공원, 삼일공원이 있었으며, 미조성된 공원은 검은돌공원 1개소였다. 주제공원에는 현충묘지공원과 사육신묘지공원 2개소로, 묘지공원이 있었다(표 3 참조).

2. 설문분석

설문지는 동작구 내 주민과 공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항은 크게 동

표 3. 공원현황 및 요인분석

	보라매공원	노량진공원	용봉정공원	상도공원	까치산공원	삼일공원	현충묘지공원	사육신묘지공원	검은돌공원 (미조성)
위치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구 대방동	동작구 본동 후석동	동작구 상도동	동작구 사당동	동작구 사당동	동작구 동작동	동작구 노량진1동	동작구 후석동
면적	420,550m ² (127,439평)	374,941m ² (113,419평)	79,382m ² (24,012평)	358,280m ² (108,379평)	229,539m ² (69,435평)	36,660m ² (11,089평)	2,094,220m ² (633,498평)	47,827m ² (14,467평)	6,600m ² (1,996평)
분류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생태적 시설요소 (Hardware)	잔디광장, 생태연못 1개소, 철쭉동산, 무궁화동산, 삼림욕산책로, 생태주차장	잔디광장, 삼림욕산책로, 생태통로(구름다리), 인공폭포	산책로, 대나무숲	잔디광장, 산책로, 소나무산림욕, 약수터, 생태실개천	산책로, 생태통로(구름다리)	산책로	잔디광장, 산책로, 약수터, 생태하천 및 연못 2개소, 야생화정원	잔디광장, 산책로, 조망감상데크	미조성 공원으로 현재 없음.
생태적 프로그램 (Software)	느티나무 레크리에이션, 인공암벽등반, 주민참여식수	주민참여식수, 잔디광장레크리에이션	조망감상(서울시에서 뽑은 우수조망명소 중 한 곳)	산림등반과 약수터이용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	서울시에서 걸기 좋은 코스로 선정된 공원으로 산책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	없음	묘지공원이라는 특성을 가진 공원으로, 주변 수림지 산책과 약수터 이용 외에는 특별한 생태프로그램이 없는 상태	조망감상(서울시에서 뽑은 우수조망명소 중 한 곳), 묘지공원이라는 특성으로 특별한 생태프로그램은 없는 상태	미조성 공원으로 현재 없음
외부녹지와 의 연계성	-서쪽으로 수림지와 연결되어, 그곳에 조성된 산책로가 수림지 건너편의 주택지와 연결됨 -그 외 주변은 도로와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도립천과의 연계가 단절된 상태임	-남쪽으로 수림지가 있고, 도로에 의한 단절을 생태통로로 연결하였음 -그 외 주변은 아파트단지과 학교들이 있지만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곳도 있고, 산책로 입구가 연결된 곳도 있음	-북쪽으로 한강과 바로 붙어 있지만 올림픽도로에 의해 완전히 단절됨 -인도 외에는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거의 고립된 상태라 볼 수 있음	-국사봉이라는 수림지가 상도공원을 둘러싸고 있어 그 산책로와 외부의 연결성이 용이한 상태 -중간 중간 도로에 의한 단절이 있음	-까치산에 산책로를 놓아 조성된 공원으로 다양한 산책로 입구가 있어 외부 아파트단지들과 연결되어 있음 -도로에 의해 단절된 부분은 생태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거의 아파트단지 내부에 조성되어 있는 상태 -인도 외에는 연결성이 극히 낮은 상태 -주변 학교녹지와 도로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녹지가 연결되어 있음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가 온통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로에 의한 단절이 있지만 한강과도 가까움 -수림지의 산책로 입구가 다른 지역과도 연결되어 접근이 용이함 -정문 지역은 큰 도로와 붙어 있고 인도와 연결되어 있음	-북쪽으로 한강이 있지만 올림픽도로에 의해 단절된 상태 -차도와 인접한 주차시설과 군부대가 있어 경계가 명확하게 지어짐 -후문 쪽으로 아파트단지와 연결되지만 도로로 단절된 상태 -주변이 인도 외에는 연결성이 낮아 접근이 어려워 거의 고립된 상태	-한강과 가까이 위치하며, 한강시민공원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아파트단지 내부 안에 위치하여 아파트 내 녹지와 연결됨
제약요인 (문제점)	-넓은 면적과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생태적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 -주변이 도로와 건물로 단절 상태	-면적에 비해 부실한 시설과 프로그램 -아파트단지, 학교녹지들과 도로로 인해 단절	-사방이 도로여서 고립되어 섬처럼 존재함 -효사정 외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거의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자연 그대로 놔둔 상태로 특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음	-까치산 내에 위치하여 산책로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음	-인도 외에는 특별한 연결이 없고, 도로로 주변이 차단되어 있음 -공간배치에 비해 프로그램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녹지율도 낮은 상태	-묘지공원이라는 특성상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한정되어 있음 -정문과 연결되는 공간이 차량이 많은 도로로 이루어져 있음	-한강에 대한 조망 외에는 주변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섬처럼 존재 -묘지공원이라는 특성상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 한정됨	-작은 면적으로, 제한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고려됨 -아파트단지과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연계가 한정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고려

(표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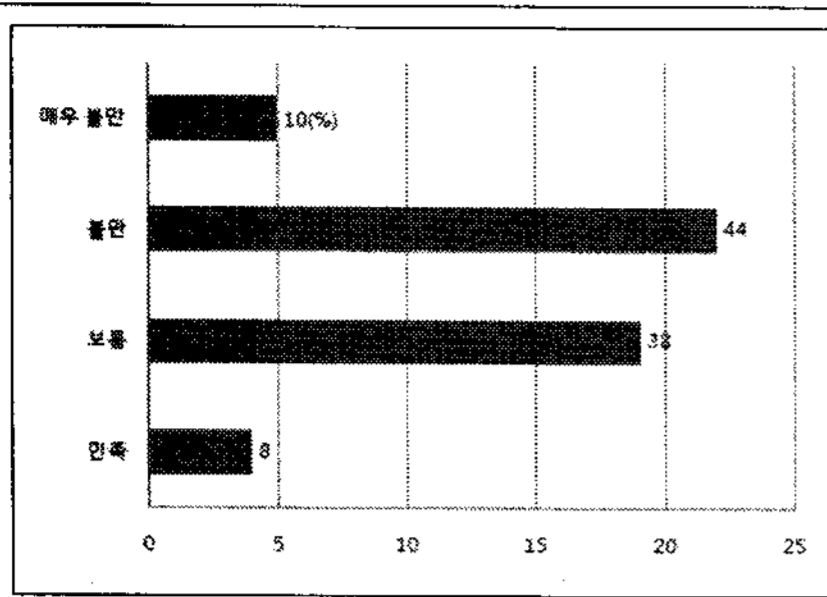
	보라매공원	노량진공원	용봉정공원	상도공원	까치산공원	삼일공원	현충묘지공원	사육신묘지공원	검은돌공원 (미조성)
기획요인 (잠재력)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가진 공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음 -동작구 내 1개 소인 도립천과 가깝고 공원 내 수림지가 있어 녹지율이 풍부함 -입구가 여러 개 있어 접근이 용이	-면적이 넓고 자연이 손실되지 않은 상태라 생태적 복원이 좋은 현황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많아 그 녹지들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중앙대 뒷산인 서달산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조망이 좋음 -상도터널이 연결되어 있어 위쪽으로 생태통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서울시에서 조망명소로 뽑힌 곳	-국사봉 내에 위치하여 자연을 그대로 살린 공원으로 녹지와 생태적 요소 풍부 -서달산과 중앙대를 지나는 연결녹지계획을 통한 간접효과 기대	-까치산 내에 조성되어 녹지 풍부 -건기 좋은 코스로 선정되어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가능 -관악산과 까치산을 연결하는 계획사업(관악까지 자연길)이 진행 중에 있음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아파트 단지의 녹지와 연결할 수 있는 기대가 큼 -주변에 까치산과 충신대학교가 있어 연결녹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녹지율이 매우 풍부하고 그 녹지로 인해 주변과의 연계성도 꽤 좋은 상태 -녹지축 연결계획사업과 근린공원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예정	-서울시에서 뽑은 조망명소 중 한 곳으로 그 특성을 살린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가능 -용봉정공원과 가까워 녹도를 통한 연결이 가능함	-한강시민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적 조건 -주변에 용봉정공원과 현충묘지공원, 중앙대 등 다양한 녹지요소가 존재하여 충분히 활용하여 녹지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결방안	-입구를 선적요소인 녹도, 점적요소인 가로수들과 건물의 옥상녹화를 통해 연계성을 높임 -수림지를 경계로 둔 지역은 산책로 입구를 통하여 연계성 높임. -생태연못과 잔디광장, 화원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선적 요소인 녹도를 통해 연결하고 특히 학교와 아파트단지 녹지를 활용하여 점적요소인 가로수나 옥상녹화를 통해 연계성을 높임 -녹지가 풍부하고, 자연이 많이 손실되지 않았으므로 자연학습장으로써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	-선적 요소인 녹도를 통한 연결 -서달산에서 뻗어 나오는 녹지를 중앙대내 녹지와 가로수, 건물 옥상녹화를 통해 공원과 연계해 줌 -조망명소로 뽑힌 만큼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풍부한 녹지대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증진 -서달산-중앙대 연결녹지에서 뻗어 나오는 녹도와 생태통로를 통하여 연결되도록 함 -자연을 살린 다양한 생태적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관악까지 자연길 조성을 통한 자연녹지축 구성에 대한 기대 -자연을 살린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산책로 활성화 기대	-녹지율이 낮으므로 아파트단지 내 녹지와 연결하고, 다층식재 함으로써 녹지율을 높이도록 함 -담으로 이루어진 공원경계부분을 녹화시켜 녹도와 연결시킴 -생태학습장 등 교육적 측면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발하도록 함	-주변 녹지 내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썸지 공간을 이용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넣어 줌 -도로로 이루어진 정문 쪽은 녹도를 통한 연결성을 갖도록 함	-도로로 단절된 부분은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연결성을 높여줌 -주변의 용봉정공원과 연결하여 공원-공원간의 녹지 연결 가능 -묘지공원과 우수조망공원이 라는 특성을 살린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	-한강시민공원으로 연결되는 녹도조성 -면적의 협소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녹지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이 용함 -아파트단지와 한강시민공원의 녹지를 통한 녹지율 확보 -주변 공원들과 학교 녹지를 통한 연결성과 녹지 확보 -공원 내 생태적 요소를 적극 살린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조성개념 제안	자연형+조성형	자연형	조성형	자연형	자연형	조성형	자연형+조성형	조성형	조성형

작구 내 녹지와 관련하여 녹지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람들의 의식과 마지막으로 동작구 내의 기존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일시는 2008년 2월 2일과 12일,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회수된 유효설문지 50부를 대상으로 SPSS 12.0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공원은 비교적 방문객이 많고 다양하다고 판단되며, 인지도 측면에서 대표성이 높은 보라매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차후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설문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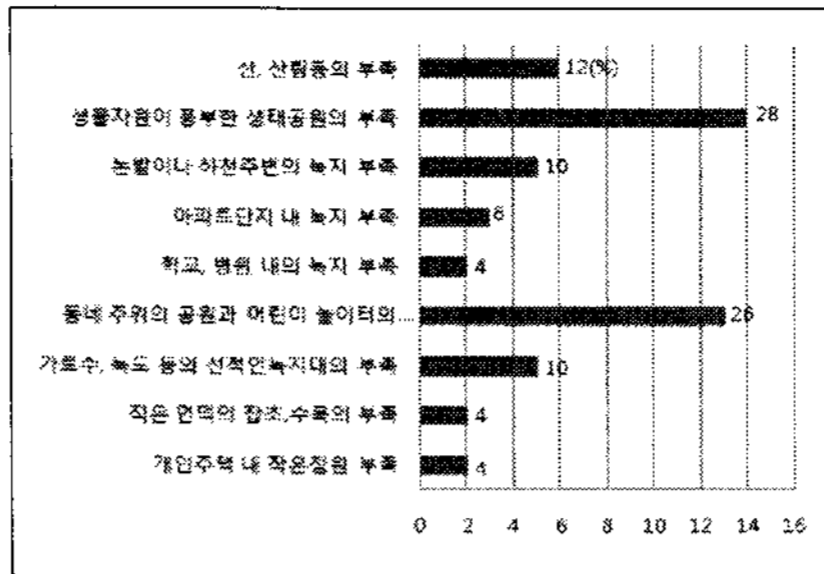
용은 표 4와 같다.

1) 동작구 녹지율에 관한 만족도(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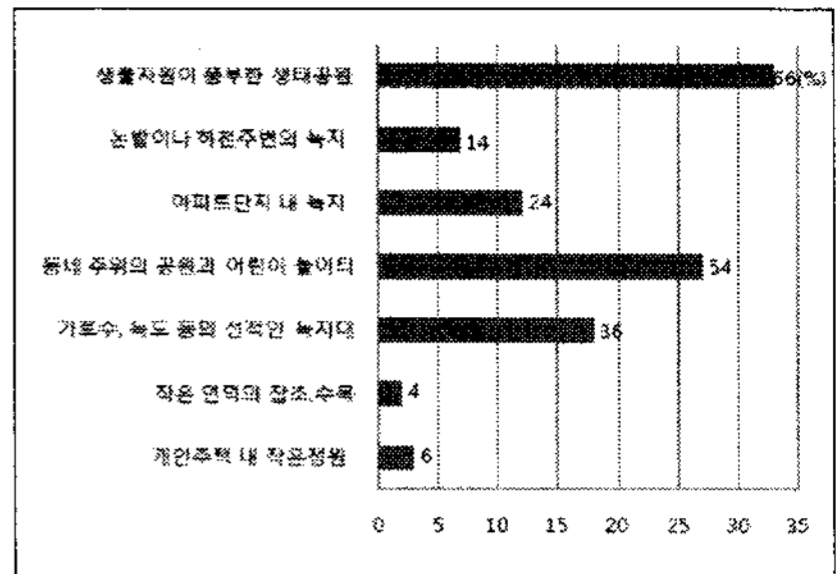
동작구의 녹지율에 관한 만족도 문항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4%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도 10%가 나와 전체적으로 동작구 녹지율에 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로 반 이상에 이르러, '불만족'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불만족 이유(복수응답가능)로는 '생태자원이 풍부한 생태공원의 부족'과 '동네 주위의 작은 공원과 어린이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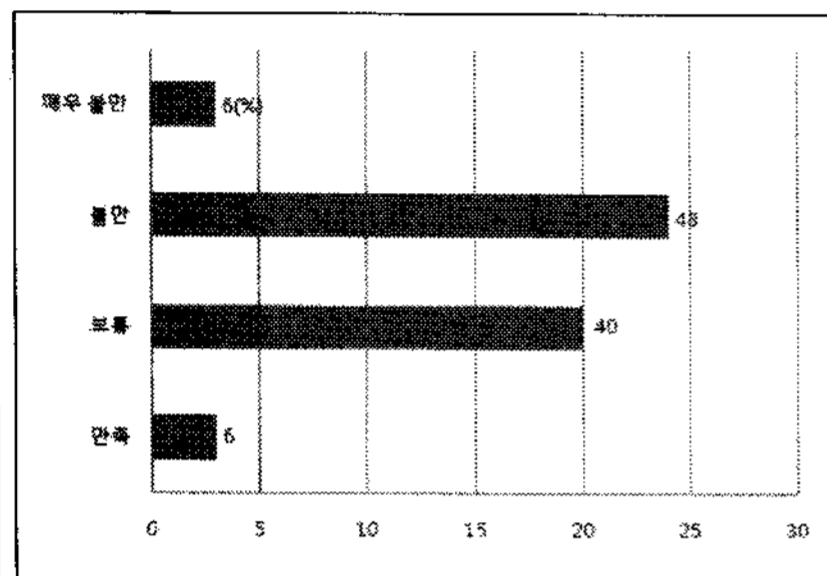
a: 동작구의 녹지유에 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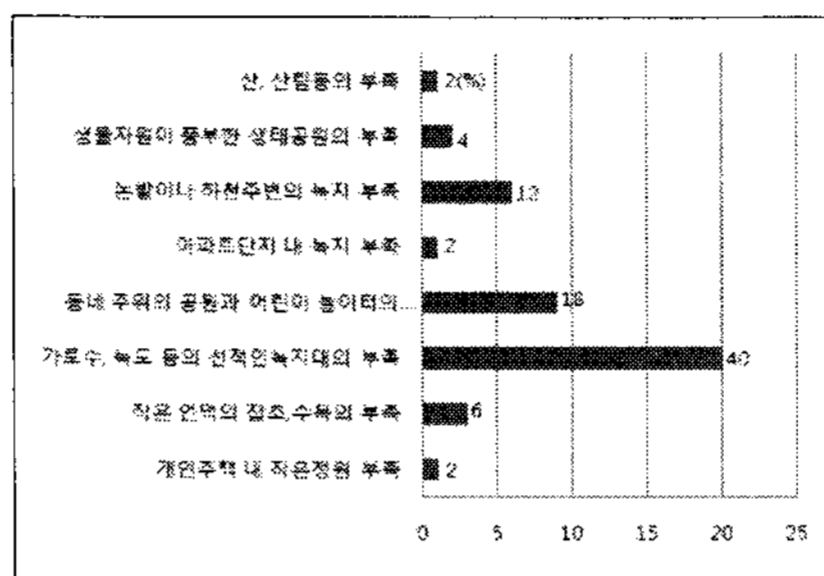
b: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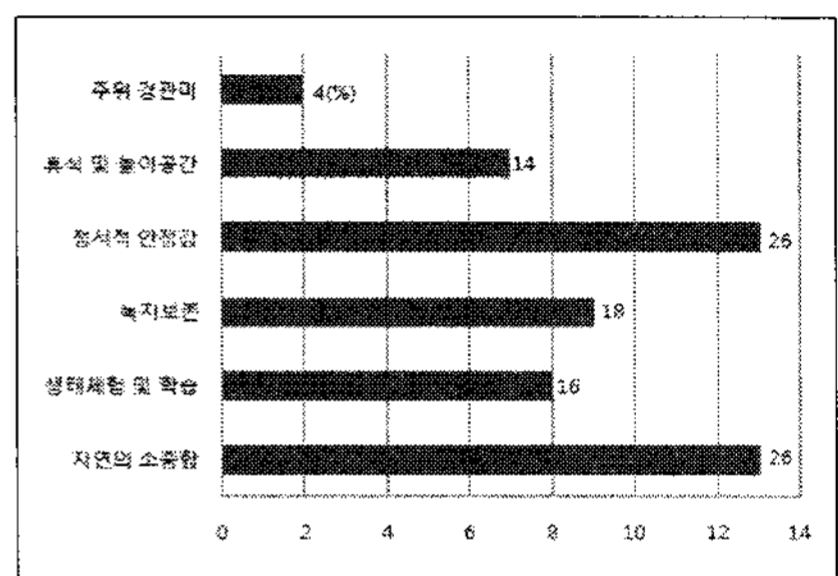
c: 동작구 내 조성하고자 하는 녹지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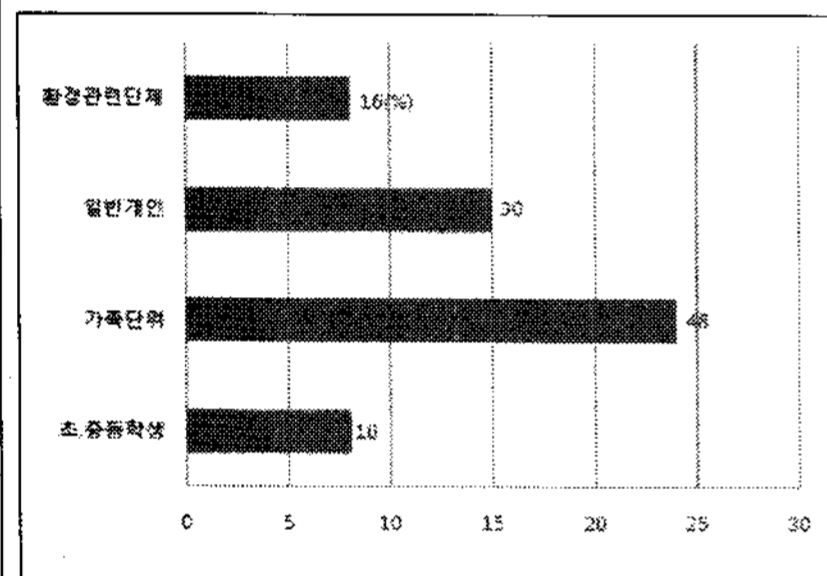
d: 집-공원 이동 시 녹지에 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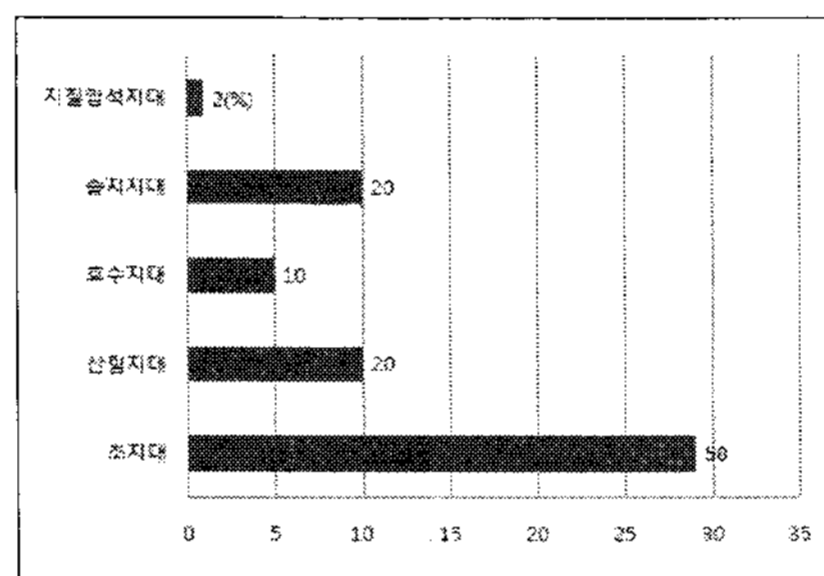
e: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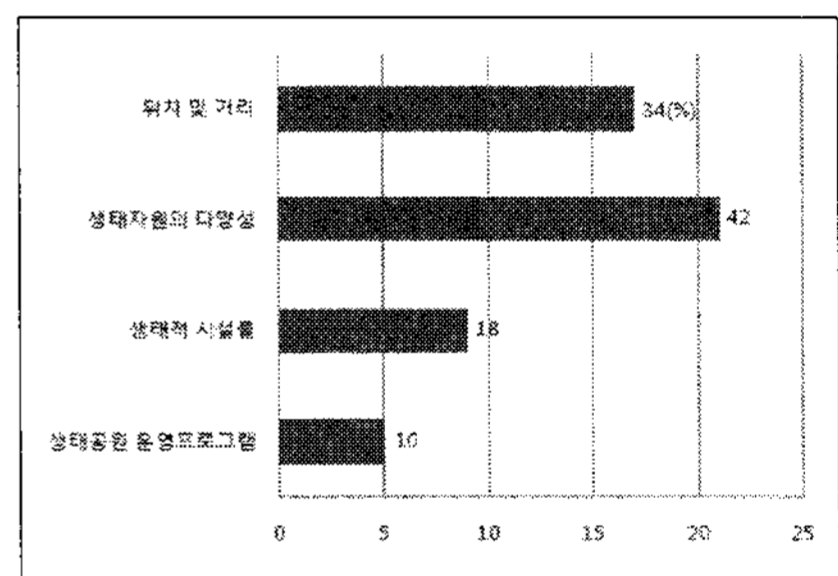
f: 생태공원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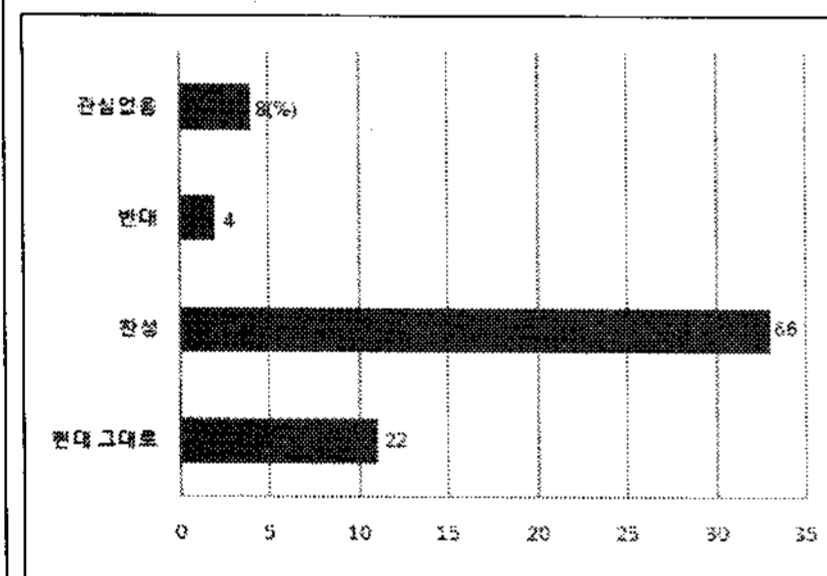
g: 생태공원 활용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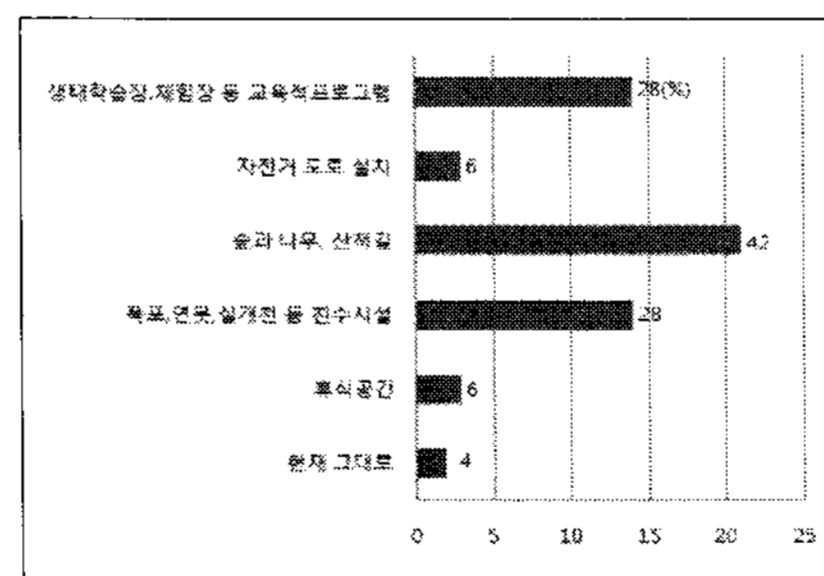
h: 생태공원에 필요한 자연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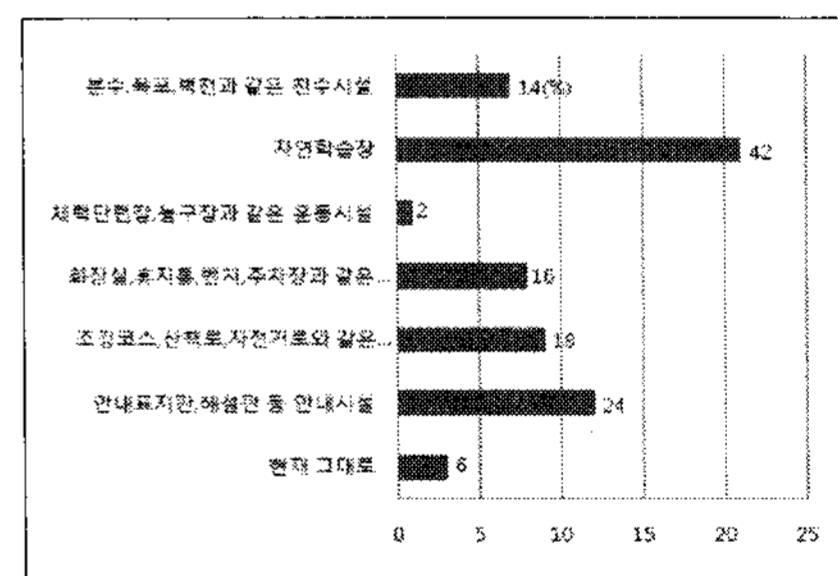
i: 생태공원 방문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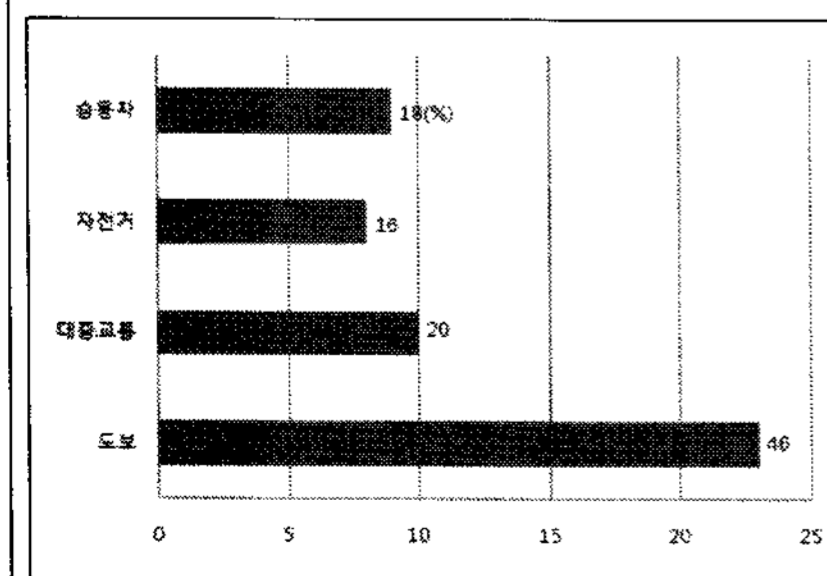
j: 동작구 내 기존근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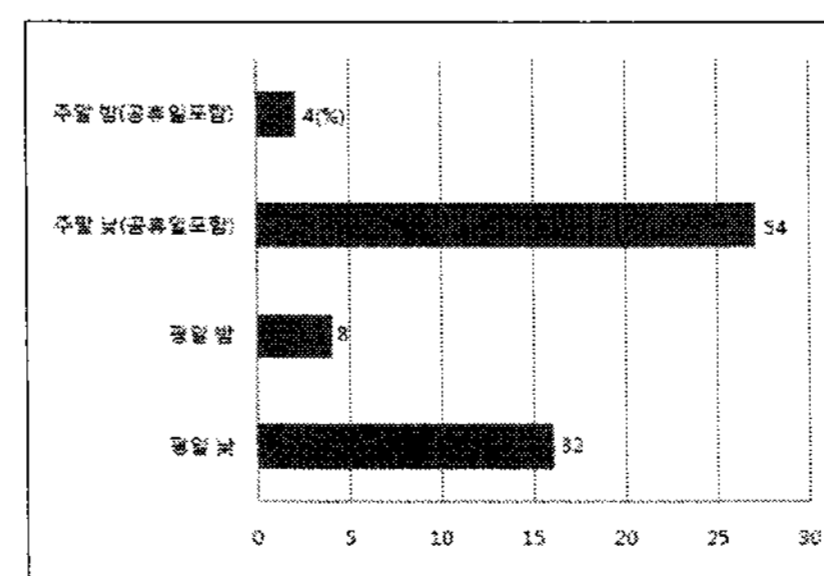
k: 복원 시 요구할 사항



l: 복원 시 필요한 인공시설물



m: 기존 근린공원 방문 시 교통수단



n: 기존 근린공원 방문 시간대

그림 1. 빈도분석 결과

표 4. 설문 내용

항목	하위항목	문항 수
녹지네트워크 (녹지 관련 사항)	녹지에 관한 개념	8
	동작구 내 녹지에 관한 만족/불만족 사항	
	동작구 내 조성하고자 하는 녹지 개념	
	집-공원 이동시 느끼는 녹지에 관한 만족/불만족 사항	
생태공원에 대한 일반적 사항	생태공원 조성 시 장점 및 활용 집단	4
	생태공원에 필요한 자연자원/시설물/프로그램	
	생태공원 방문 시 고려사항	
생태공원으로의 조성 및 복원	동작구 내 생태공원 조성의 필요성	6
	기존근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	
	기존근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복원 시 요구사 항 (시설물/프로그램)	
인적사항	성별, 연령, 직업, 거주기간, 공원이용시간, 공원이용수단	7

이터 등의 녹지 부족'이 각각 28%, 26%를 차지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공원'이라는 것을 '녹지'로 인식하고, 또한 도심 속,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그러한 공간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산, 산림 등의 부족'이 12%, '가로수, 녹도 등의 선적인 녹지대 부족'과 '논밭이나 하천주변의 녹지부족'이 각각 10%, '아파트단지 내 녹지 부족' 등이 이유로 나왔다.

2) 동작구 내 기존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그림 1 참조)

'동작구 내에 위치한 기존의 공원들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이 66%로 제일 많았고, 그 이유로는 녹지와 생태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동작구 주민들에게도, 더 나아가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동작구 내에도 크기는 좀 작더라도 '서울숲'과 같은 조성형 생태공원이 생겼으면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재 그대로'라는 의견도 22%로 적지 않았고, '반대'의견도 4% 정도로, 그 이유로는 일단 산지에 위치한 공원들이 아닌 곳들은 주거지와 너무 가까워 통제관리가 힘들 것이고, 동작구 내에는 야생동물들이 살만한 산림 등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V. 결론 및 제언

앞서 연구한 각 공원의 현황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찾아보았고, 시민들의 녹지네트워크와 생태공원

에 대한 의식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해결방안과 생태적으로 복원을 한다면 어떠한 조성개념이 알맞은가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각 공원마다 내부적으로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외부녹지와 연결성을 살펴보았을 때는 주변 녹지요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주변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연결녹지축 사업의 대상으로 해당된 지역들도 있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연결한다면 충분히 동작구 내 각 생태공원을 바탕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작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재 동작구의 녹지현황이나 공원시설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생태공원 조성에 관하여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재 동작구 내 도시공원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으며, 각 공원간의 연결성과 주변 녹지지역과의 연결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원마다 발전될 수 있는 기회요소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만 살려준다면 충분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공원으로써의 조성 및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문제점 및 잠재력 진단과 주민의식조사를 종합적으로 수정·검토하여 생태공원으로서 기회요소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외부 녹지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며, 나아가 서울시 전체 녹지체계와의 통합적인 네트워크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수립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인용문헌

1. 김도형(2005) 경관생태학적 환경계획의 원리와 적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제37집.
2. 김명수(2001) 파편화된 서식처 복원을 위한 기초 이론 고찰.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4(2): 52-61.
3. 박태윤, 노경임(2006)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9(6): 95-106.
4. 성현찬(1996)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5. 안동만, 김명수(2003) 환경친화적인 도시공원녹지계획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1): 34-41.
6. 이경재, 이수동, 장중수, 안인수(2005) 서울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내

- 도시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공원 조성기법. 한국조경학회지 33(4): 79-96.
7. 이동근, 김이선(2000)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네트워크 수립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 제9호.
 8. 이성환, 이경재, 이수동(2005) 서울시 노원구의 녹지네트워크 설정 및 생태적 구조 개선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0(2): 145-169.
 9. 이승구, 유승각(2005) 환경친화적 교육·시설접근을 위한 도시생태공원 조성계획. 관광연구저널 19(1): 275-295.
 10. 한봉호, 김정호, 김종식(2005) 도심지역 산지형 근린공원내 도로에 의한 단절지역 생물이동통로 조성계획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3(2): 16-31.
 11. Hall, M.(1995) Ecotourism or ecological imperialism?. The Geographical Magazine 67(1): 19-20.
 12. Russel, C. L.(1994) Ecotourism as experienti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7(1): 16-22.
 13. Simpson, D. R.(1999) The price of biodiversity. Issues in Science & Technology 15(3): 65-71.